

문화와 기술과 비즈니스 '디자인의 향연'을 만나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7일 개막 앞두고 오픈행사... 오늘 특설무대 테크놀로지·라이프 스타일·K-컬처·비즈니스 등 4개 테마 전시

디자인이 문화·기술·비즈니스와 만나는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사전에 볼 수 있는 미디어테이가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렸다.

오는 7일 개막을 앞두고 열린 오픈 행사장에서는 디자인의 가치를 담아낸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디자인과 기술, 라이프스타일, 문화, 비즈니스가 융합된 작품은 예술적 가치 외에도 우리 삶과 먹거리(비즈니스)의 미래를 가능케 했다.

특히 기술이 발전하고 고객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점차 디자인이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았다. 예술과 디자인이 창의성을 모티브로 서로 다양한 부분을 공유하며 공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주제는 'Meet Design' (디자인을 만나다). 예술과 차별화된 디자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살리는 디자인비엔날레를

지향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전면 대면행사로 열려 '만남'을 의미있게 구현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나건 총감독과 큐레이터들이 참여해 전시관별로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본전시가 열리는 1관 '테크놀로지'에는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한 가정과 사무실이 재현돼 있다. 인간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만나게 된다.

LG전자의 스마트 홈 가전은 과거 주방의 모습과 비교 전시돼, 시간 흐름에 따른 기술은 물론 디자인을 한자리에서 가능할 수 있게 했다. 4560디자인하우스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독일을 비롯해 이탈리아, 덴마크 디자이너들의 심미적, 환경 중심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가치를 구현했다.

2관 라이프스타일관은 인간의 삶과 디자인이 만나는 양상이 작품으로 표현된 공간이다. 세부 주제별로 개인 맞춤형 디자인, 세대와 취향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 친환경 디자인 등을 소개하고 있다.

김영규와 허그리그의 '반려의 집', 남택진 교수 연구실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안전한 집'은 트렌드와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새로운 공간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또한 스포어 코리아-레나 쿠스코프-루프 바이오텍의 '최후'는 버섯 균사체를 토대로 한 이색적인 작품이다. 농업 폐기물을 활용해 패키지가 제품을 만들고 사용 후 휴으로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사이클을 상징하고 있어 의미가 깊다.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디자인이 문화와 기술, 비즈니스와 만나는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지웅 외 '디얼로그' /김진수 기자 jeans@



'전해갑-이이남 작 '아원의 시(詩)' 공간'

K-컬처에 갖든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시관은 제3관. 이곳에서는 K-조형을 비롯해 K-POP, K-뷰티, K-웹툰 등 다양한 주제로 표현된 디자인과 조우한다.

특히 BTS가 머무며 촬영한 이후 더욱 유명해진 전북 완주의 핫플레이스 '아원고택' 미디어아트는 이이남 작가가 참여했다. 고전 한옥과 첨단 미디어 아트가 접목된 공간은 현대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콘텐츠로 손색이 없다. 아울러 '아이돌 뮤직비디오의 명가'라 불리는 자니브로스와 현대

자동차의 콜라보레이션 전시는 화려한 비주얼로 이목을 끈다.

4관 비즈니스관에서는 디자인과 경제, 문화, 비즈니스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탐색할 수 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iF 디자인어워드의 '소셜 디자인'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솔루션으로 이목을 끈다.

제임스 다이슨을 비롯해 스티브 잡스, 조나스 아이브, 조 깨버리 등 디자인 혁신가 12인의 이야기 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6일 오후 6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장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갖고 7일부터 두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6일에는 전시관람, 식전행사, 본행사, 개막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식전행사는 축하공연, 홍보-인트로 영상 상영 등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본행사에서는 개회선언, 환영사, 축사, 전시소개, 개막 퍼포먼스, 주제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식후 공연으로 어울림마당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31회 임방울국악제' 국창의 예술혼 이어간다

15~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15일 '판소리 장기자랑대회'도

광주 출신 임방울이 '국창'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서민의 정서를 잘 녹여낸 '한'의 심성과 '빼어난 성음' 때문이다. 그에게 국창이라는 호칭을 내린 주체는 국가(國)도 임금(王)도 아닌 백성(民).

임방울 선생의 판소리 정신을 추앙하고 계승하는 제31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가 오는 15~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재) 주최·주관으로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후속세대 국악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오는 15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임방울판소리 장기자랑대회'가 막을 연다. 이 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국악인들의 진치를 표방하며 금, 은, 동 및 인기상 등 총 1000만 원 상금을 입상자 50명에게 지급한다.

오후 6시 4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는 전국 명인 명창이 참여하는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전야제도 참여할 수 있다. 왕기석 명창이 사회를 맡으며 국창 조상현 선생의 판소리 한 대목, 부산대 명예교수이자 피리명인 이종대의 '한오백년 주제



조상현

에 의한 매나리 연주'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제30회 농악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빛고을영무장농악단 최웅식 의 5명, 작년 대통령상 수상자 최잔디 명창 등이 무대에 올라 국창이 애창했던 '속대머리'를 선보인다. 당시 100만장 이상 판매고를 올렸던 속대머리는 한반도와 만주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다. 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마미숙, 원진주, 정상희와 정혜빈, 최잔디, 이소영 명창 및 전 출연진이 부르는 남도민요, 황소희 등의 소고춤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펼쳐진다.

한편 임 선생의 이름을 딴 '판소리 신인 부문' 본선 경연은 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낮 12시 30분)에서 판소리 명창부, 기악, 무용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판소리 명창부는 대통령상을 표창하며 상금 4000만원과 순금 트로피를 수여한다.

상금 총계는 1억9800만원 규모이며 대회 실황은 SBS TV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창 임방울 선생

광주와 필리핀 바콜로드 교류 10년의 서사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 12일까지 필리핀서 기념전

광주와 필리핀 바콜로드의 교류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필리핀에서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이하 오버랩)은 오는 12일까지 필리핀 바콜로드 오렌지 프로젝트 메인 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 중이다. 10년의 서사가 담긴 아카이브 e북도 온라인을 통해 발간 예정이다.

'The Cycles'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역성을 탈피한 10년의 서사로, 트랜스 로컬리티 실험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대면 행사로 10년이라는 교류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 선택과 그간 참여했던 주요 작가들의 작품 위주로 펼쳐진다. 교류와 공동 창·제작의 경험이 작업으로 발화된 신작들로 구성됐다.

참여 작가는 모두 15명으로 한국 작가로는 김도경을 비롯해 김현돈, 배수민, 서지수, 조은솔 등 5명이다. 필리핀 작가로는 다릴 페릴, 레이몬드 레가스피 등 10명이다.

지금까지 두 도시간 교류는 지난 9년간 다양한 형태로 변모해 왔다. 2014~15년엔 두 지역을 오가는 교류전 행사와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2016년에는 교류의 소통과 과정에 보다 초점을 둔 공동 창·제작 프로그램인 Cycles 시리즈를 탄생시켰다.

김선영 오버랩 대표는 "필리핀 바콜로드에서 이번 전시는 지역을 초월한 우정과 환대가 맺



김도경 작 'Flower Rope'

은 결실'라며 "두 지역의 예술가들이 지역의 서사와 방법론을 창작해가는 과정은 공감과 연대의 미래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HE CYCLES'전은 지난달 12일부터 9월12일까지 한달간 필리핀 바콜로드 오렌지 프로젝트 메인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을 초입, 예술의전당 야외정원으로 초대합니다

광주시향, 7일 '극장 앞 음악회'

선선한 바람이 기다려지는 가을의 초입. 예술의전당 대극장 앞 야외 정원이 가을밤 낭만 있는 무대로 변신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이 2023 야외공연 '극장 앞 음악회'를 오는 7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잔디마당 야외무대에서 펼친다.

막을 여는 비제의 '카르멘 서곡'은 빠른 템포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편곡)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두 무곡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8번'과 브람스 '헝가리 무곡 5번'도 울려 퍼진다. 무도(춤)를 위한 곡인 만큼 경쾌한 리듬과 악상 전개가 예상된다.

이어 간주곡 역할을 하는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을 감상한 뒤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

소',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야 이 거리의 만물박사'도 선보인다.

윤학준의 창작가곡 '진향'은 달빛이 스며드는 물결의 운슬을 사랑의 잔향에 빚낸 곡인데, 야외무대의 정취와도 어울릴만한 고즈넉한 작품이다. 이외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에디트 피아프 '장밋빛 인생' 등 다양한 악곡이 레퍼토리에 있다.

야외 무대이지만 제1·2 바이올린의 풍부한 사운드와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및 플루트 등 다채로운 악기가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과 트롬본, 튜바, 팀파니, 타악기까지 총출동해 관객들과 만난다.

지휘는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한 김영연이 맡는다. 독일 카셀국립대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다.



지휘 김영연



바이올린 김동현

바리톤 이응광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서울대 성악과 및 베를린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수학했다. 또 1999년생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도 협연자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전석 무료.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시아 박물관 산책Ⅲ' 오늘 ACC 문화정보원

서남아시아의 수학과 의학, 건축학 등 학문의 뿌리를 조망하고 학문 발달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는 강좌가 열린다.

광주일보사와 (재)호남문화재단연구원(이사장 임영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아시아문화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아시아 박물관 산책Ⅲ' (서남아시아)이 6일 오후 6시30분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박물관 문화교육실에서 펼쳐진다.

이 강좌는 서남아시아 학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인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고대 이래 학문 발달사를 살피고 서남아시아가 학문에 끼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망한다.

유럽 중심으로 인식되는 학문 발달사에서 서남아시아가 기여한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석학들이 수학, 천문학, 화학, 물리학, 지리학, 의학, 법학, 건축학 등 주요 학문을 소개하고 의미를 들려준다.

금중해 한국고등교육원 석학교수의 '서남아시아의 수학' 강의를 시작으로 모두 8차례 강좌가 진행된다.

문화강좌는 오는 12월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박물관 문화교육실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